

# K리그2 1-2위 충돌...광주의 독주나 부산의 반전이나

2019년 K리그2는 울산현대와 전북 현대의 역대급 선두 경쟁이 최대 화두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K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전북,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울산 모두 시즌 개막 후 한여름을 통과하는 현 시점까지 치열한 시소게임을 펼치고 있다.

14일 현재 1위는 울산으로 16승7무2패 승점 55점을 기록하고 있다. 2위 전북이 불과 2점 뒤진 승점 53점(15승8무2패)으로 추격 중이다. 이들이 16일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3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이와 비슷한 대결이 K리그2에서도 펼쳐진다. 승격 직행권이 주어지는 K리그2 우승만을 바라보며 2019시즌을 달리고 있는 광주FC와 부산아이파크가 정면 승부를 펼친다.

광주와 부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19 24라운드에서 맞붙는다.

## 내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맞대결

### 승격 직행권 주어지는 '우승' 놓고 정면승부

### '기성용' 기영욱 광주FC단장 "내년 1부로"

14승8무1패 승점 50점의 1위 광주와 13승6무4패 승점 45점 2위 부산의 물리칠 수 없는 대결이다.

광주와 부산은 리그 개막 후 지난 5개월여 동안 K리그1 다이렉트 승격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은 광주다. 광주는 개막 후 19경기에서 무패(13승6무) 행진을 달리는 등 탄탄한 모습으로 선두 자리를 고수해왔다.

부산도 여느 시즌 같으면 1위를 달릴 수 있는 성적을 거뒀으나 '무패' 광주 때문에 서러운 2위에 줄곧 머물렀다. 하지만 부산 역시 꾸준했는데,

덕분에 격차가 많이 줄었다.

지난 21라운드 기준 광주와 부산의 격차는 9점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광주가 7월20일 안양에 1-7로 대패를 당하며 무패가 마감됐고 8월 들어 2경기 연속 무승부(3일 vs 전남 1-1, 10일 vs 부천 1-1)에 그치는 등 추종하는 동안 부산이 2연승을 거두면서 14일 현재 승점 5점차로 좁혀졌다. 이번 맞대결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두 팀 모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결이다. 분위기가 다소 처진 광주가 만약 홈에서 열리는 추격자와의 경기까지 놓친다면 향후 K리그2 우승 경쟁



은 안개정국이 될 공산이 크다. 부산 입장에서는 뒤집기 발판이 마련될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불론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광주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수 있다. 레이스가 후반부로 향하는 시점에서 승점 8점차

있다는 것도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 징계와 부상 등으로 결장했던 박정수와 임민혁이 중원에 가세한다는 것도 광주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맞서는 부산도 면면은 만만치 않다. 이정협, 노보트니, 이동준, 호불로 등이 이끄는 공격진은 23경기에서 47골을 터뜨릴 정도로 강력하다. K리그2 최다득점 클럽이다. 여기에 박종우, 김민환 등 전현직 국가대표 자원들이 요소요소에 퍼져 있다는 것도 든든하다. '기성용 아버지'로 팬들에게 더 유명한 기영욱 광주FC 단장은 "어떻게든 내년에는 1부로 간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구단주인 부산 역시 조덕태 감독 아래에 노상래-이기형 감독급 코치를 붙이면서 승격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승격권은 단 1장. 한여름 밤 맞대결에서 밀리는 팀은 타격이 크다.

뉴스1

## 인터뷰

# "일본전? 틀어막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야구 해야"...투수전 전망

### '2008베이징 신화 재현 준비' 김경문 감독

2008년 베이징올림픽 9전 전승 금메달 신화의 주인공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61)이 다시 한 번 감독적인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김경문 감독에게 올림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11년 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고, 야구가 올림픽에서 부활하는 2020년 도쿄 대회를 앞두고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 "먼저 2승 거둬야" 올림픽 출전권이 우선 과제

프리미어12는 오는 11월 개막한다. 세계랭킹 3위 한국은 쿠바(5위), 호주(7위), 캐나다(10위)와 C조에 포함됐다. 11월6일 호주전, 7일 캐나다전, 8일 쿠바전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 총 6개 팀이 슈퍼라운드에서 풀리그를 통해 순위를 가린다. 순위에 따라 결승전과 3·4위전이 열리는 방식이다. 슈퍼라운드는 일본 도쿄돔, 조조 마린스튜디오(지바)에서 열린다.

김경문 감독은 "일단 2경기를 이겨야겠지. 첫 번째 목표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것"이라며 "결승전, 도쿄올림픽도 생각을 하지만 출전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홈에서 열리는 축제가 아닌가. 축구로 따지면 A매치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열심히 보시겠나. 국민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김경문 감독의 말에는 무게가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번 프리미어12는 개최국 일본을 제외하고 각 대륙별로 1장씩 올림픽 진출권을 제공한다. 한국은 슈퍼라운드 진출해 대만과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에 배분된 티켓을 차지할 수 있다.

◇ 짜릿했던 한일전의 기억 "투수력 강한 일본, 지키는 야구로 이겨야"

'신화'라 불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경문 감독은 "그때 정말 겁없이 야구를 했다. 선수들이 잘 따라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11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베이징올림픽에서는 한일전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4강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라 쿠바마저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일본전은 대회 내내 부진하던 이승엽(KBO 홍보대사)의 홈런으로 승리, 극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김경문 감독도 "한일전에서 이겼을 땐 정말 짜릿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며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번에도 한국이 슈퍼라운드 진출하면 한일전이 성사된다. 최근 한일관계를 감안하면 더욱 불꽃 튀는 승부가 될 수 있다.

김경문 감독은 "일본에는 150km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많다. 타이밍이 맞을 때 즈음 계속 교체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몇 점이나 나겠다"라며 "5점 주고 7점 내서 이기는 야구는 어렵다. 틀어막고 한 점을 지켜내는 야구로 이겨야 한다. 점수 주고 시원하게 쳐서 멋있게 이기는 야구는 지금 내 머릿속에 없다"고 투수전을 전망했다.



◇ 한국 프로야구를 향한 아쉬움 "급하고 각박해"

2004년 두산 베어스에서 처음 감독 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해 시즌 중 NC 다이노스에서 불리날 때까지 15년 동안 씩씩이 달려온 김경문 감독이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 상황은 김경문 감독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프로가 성적을 내야 하는 곳은 맞지만 양상문, 김기태 감독을 보면 조금 급하고 각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상문(58), 김기태(50) 감독은 올 시즌 나란히 중도사퇴했다.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의 성적 부진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NC에서 같은 과정을 겪었던 김경문 감독으로서 두 감독의 사퇴 과정이 가슴아플 수밖에 없다.

김경문 감독은 "위에서 여유가 없으면 아래도 여유가 없다. 감독이 여유가 없는데 선수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이치와 같다"며 "감독들도 성격이 나쁘면 계약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만뒀어야 할 때를 안다. 그럴 때일수록 프런트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야구문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남겼다.



## 광양시청, 한국실업불링연맹

### 전국실업대회 종합우승 '쾌거'

최복음 4관왕 · 가수형 2관왕

광양시청 소속 불링팀이 최근 7일간 전라남도체육진흥재단 불링경기장에서 펼쳐진 '2019 전라남도 한국실업불링연맹 전국실업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실업 불링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 2인조 3인조, 팀전, 개인종합, 마스터즈 대회 등 6개의 종목으로 치러졌다.

광양시청 소속 불링팀에 최복음 선수는 개인전, 2인조, 5인조, 개인종합 종목에서 4관왕을 3인조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가수형 선수는 2인조 5인조 종목에서 2관왕을 3인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맹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업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마지막 날 펼쳐진 마스터즈에서 최복음, 가수형 선수가 참가하였으나 8강에서 탈락하며,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준수 광양시청 불링팀 감독은 "그동안 우리 팀 전체 성적 부진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 종합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선수 모두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제2의 전성기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체육과장은 "우리시 선수단이 이번 전국실업대회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아 기쁘다"며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건리남도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전국 2위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